#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청년학포럼 출범 기념세미나
발제자 : 김용재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대외협력담당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일 시 : 2016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장 소 :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기념 세미나 주요 내용

### < 요약 >

**☞ 6월 23일 청년학포럼 출범 기념세미나에서는 김용재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대외협력담당관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연사로 한국 청년 문제와 청년학의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청년'이란 단어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각종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년 문제 원인 분석 중 다수는 청년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과거보다 삶의 여건이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오늘날 청년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 청년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령화, 중국의 발전,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있다. 노령화에 따른 청년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 중국의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쟁격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기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청년 세대가 무너진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청년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청년 실업은 선진국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 만성화된 청년 문제에 봉착한 뒤에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한 끝에 2003년에 종합적인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긴 바 있다. 그렇지만 이 정책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중국 청년 문제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령화나 산업구조 조정의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편이다. 고도성장의 기세가 꺾이면서 매년 배출되는 청년 구직자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 청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책임 회피와 책임전가의 기존 정치를 벗어나서 여러 이해당사자가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조율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총부양비, 즉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연령인구(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0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3~4년이 골든타임이다.

■ '청년학'이란 출생 이후 독립적 청년이 되기까지의 연구를 일컫는다. 현재 사회는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로 경제적 빈곤과 세대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청년사회의 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진사회를 구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15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정부 예산 2조 1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금액에 비해 실효성은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범사회적인 양성시스템의 부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중심의 정책 편중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정책은 형식적으로 변질됐고 낙후됐다. 패쇄적인 교육시스템이 질적 성과를 저하시켰다. 청년 정책은 세대간 영역간 다면적 Rent-Seeking(지대추구,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의 결과로 이어진다.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등 모든 정책대안을 Zero-Base에서 검토해야 한다.

## ■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청년 문제'
## : 원인은 노령화, 중국의 발전, 제4차 산업혁명

- '청년'이란 단어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회적으로 청년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기여한 것은 선거였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각종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 오늘날 청년 문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데 겪는 어려움에서 출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3월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52만 명(11.8%)을 돌파했으며, 2월에는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2.5%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4%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집계되면서 실업난이 장기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청년 문제 원인 분석 중 다수는 청년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온실 속 화초론'이 그것이다. 과거보다 삶의 여건이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오늘날 청년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IMF 이후 한국을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와 최근 지구촌이 직면한 '저성장 기조'가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 청년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령화, 중국의 발전,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있다. 세 가지 요인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그 자체로 정부의 대응을 요하는 동시에, 그 대응들이 청년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노령화에 따른 청

년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중국의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쟁격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기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청년 세대가 무너진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 한중일의 공통적인 청년 문제, 원인과 도전
### : 한국 저부가가치, 중국 혁신적인 IT분야, 일본 모험회피적 창업 중심

- 청년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청년 실업은 선진국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 만성화된 청년 문제에 봉착해왔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한 끝에 2003년 이후에 종합적인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정책 실패를 통하여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경제 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를 실행에 옮길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세 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아베노믹스로 나타났고 대학 정원 감축과 커리큘럼 개혁도 전국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 중국 청년 문제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령화나 산업구조 조정의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편이다. 고도성장의 기세가 꺾이면서 매년 배출되는 청년 구직자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에서 조선 수요 및 해운 환적물량을 흡수해감에 따라 한국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해마다 15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새로이 등장하지만 이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은 한중일 3국 정부가 공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히 비교해볼 가치를 갖는다. 3국은 각각 창조경제,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혁신(萬衆創新), 앙트레(entree)×IT라는 기치를 제시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창조혁신센터와 같은 별도 기구까지 설립했다.

- 한국무역협회에서 작년 연말 진행한 3국 청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상이했다. 한국에서 창업은 취업이 안 될 경우 선택하는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카페나 음식점 같은 생계형, 저부가가치 창업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IT분야를 겨냥한 혁신형 창업을 하고 해외진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3국 가운데 가장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모험회피적 태도를 보였다. 조사 결과 창업에 대한 지원은 명확한 방향성과 대상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패의 두려움과 자금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창업을 통한 청년 문제해결 및 개선은 요원함을 알 수 있다.

Trade Breif 57 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단위: %

| <진로희망> | 한국 | 중국 | 일본 |
|---|---|---|---|
| 창업 | 6.1 | 40.8 | 3.8 |
| 취업 | 78.8 | 38.5 | 79.6 |
| 학업 | 15.1 | 20.7 | 16.7 |

| <창업 장애요인> | 한국 | 중국 | 일본 |
|---|---|---|---|
| 실패 위험 부담 | 38 | 17.8 | 25.3 |
| 자금 확보 | 22.3 | 1.8 | 11.3 |
| 창업 아이템 | 17.9 | 46.2 | 25.8 |
| 창업 방법 난해 | 11.7 | 13 | 23.1 |

| <창업 희망업종> | 한국 | 중국 | 일본 |
|---|---|---|---|
| 요식업 | 31.3 | 11.2 | 7 |
| IT | 11.7 | 20.1 | 11.8 |
| 문화/예술/스포츠 | 10.1 | 5.9 | 17.2 |

| <글로벌 창업 > | 한국 | 중국 | 일본 |
|---|---|---|---|
| 창업 시 해외진출검토 | 32.4 | 84.6 | 16.7 |

## ■ 청년 문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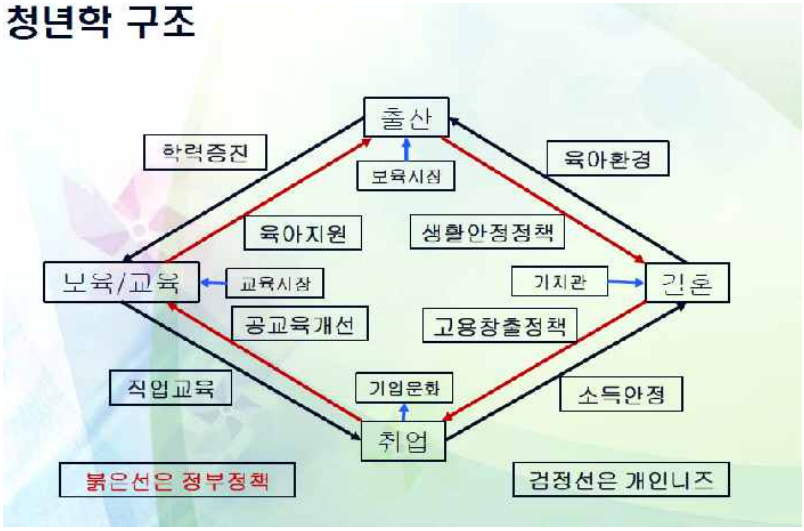
### : 눈앞의 화려한 정책으로 본질을 가려서는 안 돼

- 청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책임 회피와 책임전가의 기존 정치를 벗어나서 여러 이해당사자가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조율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즉 정해진 흑백프레임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협상과 타협을 수치로 여기는 정치 풍토로는 청년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 한국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총부양비, 즉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연령인구(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0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총부양비 증가는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할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앞으로 3~4년이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 동안 청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전기충격기로도 되살리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조정, 청년수당 등 당장 눈앞의 화려한 정책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 한국도 자신이 지향하는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만이 옳다고 강요하는 독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도자, 반대논리를 내세우는 관료 내지는 정치인들의 주장도 타당하다면 수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 ■ 경제적 빈곤과 세대간 갈등 심각, '청년학' 이 필요하다

### : 모든 정책대안 Zero-Base에서 검토해야

- '청년학'이란 출생 이후 독립적 청년이 되기까지의 연구를 일컫는다. 청년학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책임 있는 독립된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환경 개선과 지원, 보호, 비전, 생애계획이 중심이 된다. 현재 사회는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로 경제적 빈곤과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청년사회의 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진사회를 구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방황하는 10대의 수는 약 43만 명에 이른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10.8%이고 비정규직은 점차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환경의 악화는 청년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 2015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정부 예산 2조 1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금액에 비해 실효성은 낮다. 아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중심의 정책 편중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정책은 형식적으로 변질됐고 낙후됐다. 여기에 패쇄적인 교육시스템이 질적 성과를 저하시켰다.
- 청년 정책은 세대간·영역간 다면적 Rent-Seeking(지대추구,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의 결과로 이어진다.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등 모든 정책대안을 Zero-Base에서 검토해야 한다.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은 해외 대학과 교류를 통해 폐쇄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류와 한민족의 허브로 거듭나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신앙과 생존, 싱가폴은 실용, 네덜란드는 개방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미 청년을 중심으로 국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고령사회의 종식과 청년세대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도전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청년은 미래 한반도 통일의 필수 자원이다.

## 청년학포럼 질의응답

**질문1** **청년학 포럼을 통해 달성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답변** 오늘날 청년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이 미래를 짊어질 세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은 노령화, 중국의 발전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 가지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이 바로 청년학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현대사회의 노령화와 기술변화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대한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질문2** **청년실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답변** 청년들이 높은 연봉의 기업보다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현상은 불안한 고용시장에서 안정성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소득수준은 낮더라도 인생설계가 가능한 직장에서 근무하려는 경향이 오늘날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따라서 기존 고용시장 문제 완화와 제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영역의 창출이 미래의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다.

**질문3** **미래 한국사회에서 청년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변**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이제 선진화를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앞으로 우리가 따라갈 선진국은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 스스로 답안을 제시해야 한다. 청년학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꾹~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